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sian Festival of Speed)이 지난 5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개최되었다. 그 화려한 현장에 KARA 대학생 서포터즈가 직접 다녀왔다.

Asian Festival of Speed!

GT Asia, Audi R8 LMS Cup, Porsche Carrera Cup Asia(PCCA) 3가지 클래스로 나뉘어 진행된 2015 AFOS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올해 첫 국제대회로 세계 20개국 1500여 명의 대회 관계자와 70여대의 슈퍼카를 비롯해 120여 대의 차량이 참가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인 선수로 팀 아우디코리아의 유경욱, 팀 포르쉐코리아의 로웨로프브루인스(이하 한국명 최명길), 이레인 레이싱팀의 앤드류 김(Andrew Kim)이 출전하여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의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Audi R8 LMS Cup 3라운드 결승전은장카릴베르네이(FAW-VW 아우디 레이싱팀)가 30분 28초 574로 포디움 정상에 올랐고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접전을 벌인 토마스조드비치(페더럴-모글모터파츠레이싱팀)가 라헬 프라이(캐스트롤레이싱팀) 등을 제치고 2위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경기가 첫 출전인앤드류 김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패널티를 받아 아쉽게 8위로 밀려났다.

4라운드 역시 장카릴베르네이가 1위를 차지하는가 싶었지만, 패널티로 인해결국 라헬 프라이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3라운드에서 미션 트러블로 리타이어했던 유경욱은 2위로 한 단계 올라서면서 대회 출전 후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다. 앤드류 김은 경기 초반 토마스조드비치와의 추돌로 스핀했고 결국 리타이어 했다.



10랩으로 진행된 PCCA 3라운드 결승전은 크리스 반 더 드리프트(캠룽레이싱)이 23분 34초 815의 기록으로 폴 투 피니시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2위 경쟁은 크레이그베어드(클리어워터레이싱)가 최명길을 0.44초 앞서면서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역시 크리스 반 더 드리프트가 폴 투 피니시로 우승을 차지하였고, 4그리드에서 출발한 크레이그베어드가 2위, 2그리드에서 출발한 최명길이 경기 초반 스핀으로 4위까지 밀려났지만 3위로 포디움에 올랐다.

GT Asia 이번 1라운드에서는 맥라렌 650S GT3, 페라리 458 GT3, 애스턴마틴밴티지 V12 GT, 람보르기 니가야르도 FL GT3, 아우디 R8 LMS CUP, 벤틀리컨티넨탈 GT3 등 16 여대의 슈퍼카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라운드에서 다비드리조(이탈리아), 앤서니리우(중국)으로 구성된 BBT 레이싱 팀(페라리 458)이 1시간 19초 581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다. 2라운드 결승에서 애스턴마틴밴티지 V12 GT3로 출전한 델리 오영과 조나단벤틀러조(크라프트뱀부레이싱)가 1시간 29초467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 2위로 경기를 마감하면서 2라운드 우승 후보로 자리잡았던 제임스칼라도와 목 웅 순(페라리 F-458 GT3/클리어 워터레이싱)은 차량 스핀으로 리타이어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출전이 처음인 벤틀리컨티넨탈 GT3(애 덜리 풍, 케이트 사와/벤틀리 팀 앵솔루트)가 3위에 입상하며 레이싱 DNA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5 AFOS 양돈규 경기위원장 대학생 서포터즈와 만나다.



| KARA 대학생 리포터들과 함께 한 양돈규 AFOS 경기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

Q.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스피드페스티벌 경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돈규입니다. 슈퍼레이스 안전위원장, 코리아 F1그랑프리 부경기위원장, 안전 이머전시 등의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Q.AFOS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FOS는 GT 클래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시리즈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클래스 중 GT아시아는 드라이버가 2명입니다. 경기 중간에 피트에 의무적으로 정차를 하고 드라이버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드라이버들의 등급이 다릅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등급별로 조합을 합니다. 차종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와 밸런스 규정에 따라서 맞춥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슈퍼카 혹은 비싼차들이 베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주차의 성능도 뛰어나고, 경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우디 R8 LMS CUP 같은 경우는 한가지 차종으로 경기를 합니다. 주로 딜러에서 운영하는 팀이 출전합니다. 예를 들면, 유경욱 선수가 딜러 팀 소속입니다.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를 모아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며 시리즈 챔피언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나 올해 경기 운영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주최측 예산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터스 포츠가 해결 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관 등의 문제로 참가 예정이었던 일부 팀이 오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반대로 기쁜 점은 한국 선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유경욱 선수뿐이었는데, 올해는 유경욱이 2등, 앤드류 김 선수가 3등을 했습니다.또 최명길 선수가 출전을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Q.F1과 비교해서 AFOS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는 GT들의 매력은 현실 세계에서 타보기 어려운 포물러 원 차량들과 다르게 우리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멋진 차'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물러 원은 궁극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GT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CJ 슈퍼레이스의 슈퍼6000과 비교해도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Q.레이싱을 잘 모르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레이싱을 잘 모르더라도 그리드나 피트워크, K-POP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모터스포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가지면서 레이싱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선두권은 물론 중하위권에서도 치열하게 경합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포츠인 만큼 응원대상을 정해 놓고 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룰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경기가 더 흥미로워 집니다. 룰을 알고, 선수를 알면 더욱 흥미로워 지고, 차를 알게 되면 레이싱에 빠지게 되고 열광하게 됩니다.

Q. 위원장님에게 AFOS 란 무엇인가요?

AFOS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답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소 이면서도 경기를 잘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Q.AFOS를 즐기러 와주신 대중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FOS를 보러 먼 곳 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는 시간 까지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모터스포츠 팬의 눈으로 본 AFOS

AFOS 경기의 첫인상은 바로 GT 클래스에 출전한 슈퍼카들의 비주얼과 배기음에서 오는 쇼크였습니다. 눈과 귀를 함께 자극하는 경기 현장에 우리들은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왜 모터스포츠가 전세계적인 인기 종목인지 알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유경욱 선수를 비롯한 국내 드라이버들의 존재는 관중들에게 확실한 응원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관중석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스타의 존재가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현상이었습니다.

그리드와 피트 워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슈퍼카와 드라이버를 직접 보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충분한 행사 시간을 배려해 관중들이 만족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또 K-POP 공연, 각종 홍보관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는 팬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역시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지 않은 이상 목포시내에서 경기장까지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목포역-서킷간 셔틀버스 운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장기산 자가용 운행이 부담되어 관람을 포기했던 관람객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의 부족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대학생 리포터들의 지인들조차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AFOS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기 일정을 스스로 검색할 정도의 '모터스포츠 마니아'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쉽게 경기정보가 도달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이미 검증된 이야기이겠지만 모터스포츠는 일단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매우 강렬한 첫인상을 받게 되는 종목인 듯 합니다. 타 스포츠에 비해 다소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여 관람객 입장에서 접근성을 높여 주려는 현실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ARA 대학생 서포터즈 1기

• 기획/취재: 박선경, 홍준영 • 사진/영상: 김효원, 이성호, 최호중